

7 월 소그룹 인도자용

1 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 76:1-12

새 20 장(통 41 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Begin , My Tongue, Some Heavenly Theme

새 350 장(통 393 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March We Onward

새 390 장(통 444 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adeth me: O blessed thought!

1. 여는 질문 : 내가 들었던 칭찬의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 말은 상대의 기분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모임을 위해 한 바리에 모인 속원, 소그룹 멤버들에게 칭찬의 말을 나누면서 서로를 환대하고 마음을 열어봅시다. 누군가 내게 해줬던 칭찬의 말이 내게 어떤 힘이 되는지도 나누어 봅시다.
-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리는 행위입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칭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본문이해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다른 46 개의 성읍이 함락되었으며, 앗수르 장수는 모욕적인 말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선동했습니다. 나아가 앗수르의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왕의 편지를 펼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왕하 19:19).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앗수르의 군대를 전멸하셨습니다. 앗수르 왕인 산헤립 역시 배반자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싸움 한 번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에 시편기자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1 절)라고 노래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과 같이 앗수르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국이 알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여전히 죄로 인해 실패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 군대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유다 백성에게 다시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밤 사이 앗수르의 군대가 진멸당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5-6 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찌라도, 큰 힘을 가진 자라 할찌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하심은 그가 예루살렘을 택하사 그의 처소를 시온에 두셨기 때문입니다.(2 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9 절)이시며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7 절). 하나님은 "고관들의 기를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12 절)이십니다. 시편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11 절)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본 모든 이들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2. 말씀 속으로

1) 시편기자가 하나님을 묘사한 표현들을 모두 찾아봅시다.

1 절 / 알려지셨도다 (개역한글에는 그 이름이 크시도다라고 번역되었으며 ESV 는 His name is great 이라고 기록합니다)

2 절 /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

4 절 /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심

5 절 / 그 손을 만날 수 없으신 하나님 (누구도 손 쓸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이도 그의 행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7 절 / 경외 받으실 분

8 절 / 땅도 두려워 함

9 절 / 구원하시는 분

10 절 /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12 절 / 세상 왕들도 두려워하는 분

2) 구원을 얻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는 무엇입니까?(11 절)

서원하고 갚으라.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세상의 왕들도 두려워하며,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예물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칭송과 경외, 경배와 찬양입니다.

3. 삶 속으로

1)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할 때는 먼저 키가 큰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2)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믿는 자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의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더 크게 찬양할 때 원수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4. 암송 구절 – 시편 76:1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5. 자녀와의 나눔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 해보고, 왜 그 사람이 생각났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분은 누구인지 이야기해주세요.

가장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와 사망으로 부터 구원하셨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2 주 신앙고백, 우리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 91:1-16

새 249 장 (통 249)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새 565 장 (통 300) "예수께로 가면"

새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1. 여는 질문

어느날, 딸이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좋아. 아빠, 나는 아빠가 있어서 넘 든든해!" "엄나, 엄나는 난 엄마가 넘 좋아.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넘 든든해!" 이렇게 와서 말해주는 딸,아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생각나는 것을 말해봅니다.

아들, 또는 딸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니, 그때는 조카라고 해도 됩니다. 남편 또는 아내라고 해도 됩니다.

2. 본문 이해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누군가가 설명해주면 알게 될까요? 오늘 시편 91 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시는지, 3 절에서부터 16 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3 절을 보면,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죽을 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8 절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손봐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것 같은가요? 2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교회의 신앙고백은, 요즘은 박물관에서나 찾는 오래된 "고물"처럼 생각해 왔었습니다. 현대적 예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고백 하는 크리스찬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2 절).

3. 말씀 속으로

- 1)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2 절)
- 2) 하나님은 이 고백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요? (14-16 절)

4. 삶 속으로

- 1) 하나님이 왜 좋으신 것 같은가요?
- 2) 그렇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_____ 분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도 제가 좋으신가요?” 말해 봅시다.

신앙고백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들로써, 딸로써,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을 살갑게 느끼는 길, 신앙고백, 내 것을 만들어 보고, 실제 말로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6. 암송 구절 – 시편 91:2 “나는 주님께, 주님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7. 자녀와의 나눔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에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3 주 복된 믿음, 선교적 삶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 119:1-16, 43-45

새 285(통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새 357(통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 505(통 268)장 온 세상 위하여

1. 여는 질문

지금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드린다면, 그 카드로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그 카드 한 장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즉시 대답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된 삶은 내 인생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인지 시편 119 편 말씀에서 찾아봅시다.

2. 본문 이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시편 1 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 편에서도 비슷하게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흠 없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둘로 나뉘이지 않고, 시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온전히 따라 살아 갈 때 참된 축복의 삶이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1-3 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합니다(6 절).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인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한 삶은 안전하며, 평안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은 믿음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은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4-8 절).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은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시 73 편) 복되고 깨끗한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10 절),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13, 15 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9-11 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이 깨끗하게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믿음의 여정 끝에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45 절)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인생의 궤도로 삼듯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겠다고(눅 6:45) 다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침없이 온 세상을 향해 걷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선교적 삶이 아닐까요?

3. 말씀 속으로

1.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 (1-8 절)
2.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9-16 절)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다해도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3 절)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 사는 것입니다. (9-16 절)

4. 삶 속으로

1.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실까요?
2. 방학 중에,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은 무엇이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가정예배 드리기, 중보기도하기, 말씀읽기, 주일예배 참석, 소그룹 모임, 카톡 방에서 서로 격려하기, 전화로 격려하기, 아픈 성도 병원에 모시고 가기, 외로운 분들 전화로 격려하기, 홈리스분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기 ...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5. 암송구절 – 시편 119:45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6. 자녀와의 나눔

1.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십계명은 무엇인가요?
2. 십계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나눠봅시다!

4 주 동거하는 연합을 아시나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 133 편

찬송 220 장 (통 278)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 212 (통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1. 여는 질문

가정에서 형제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본문 이해

시편 133 편은 다윗이 형제간의 사랑과 연합을 보배로운 기름과 혈몬의 이슬로 비유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탄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과 이슬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름은 고대근동지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축복과 보호를 기원할 때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바르기도 했고,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몸을 단장하고 존경의 표시로 몸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은 만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바로 기름과 이슬과 같이 귀하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이익을 좇아 만들어진 여러 집단이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이익을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과 믿음을 좇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소극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습을 가장하고 그저 분쟁을 없애고 잡음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안에서 서로 맘이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매너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연합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 장 4 절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분이시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안에서 믿음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안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연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원(Circle)의 중심(Center)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원주(Circumference)를 이루는 모든 점인 성도가운데 한사람 한사람이 중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속에서도 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여러 다른 모양일지라도 자유함 가운데 연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연합의 열쇠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앙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 가운데 온전한 연합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담을 육체로 허시는 화해자가 되어 주심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엡 2:14)

3. 말씀 속으로

- 1)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1 절)
- 2)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2-3 절)

4. 삶 속으로

- 1) 사람이 모이는 어떤 사회일지라도 그 안에는 갈등요소가 잠재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꿈꾸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즉 동거하는 연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2)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배경과 방식이 모두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인 신앙공동체가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5. 암송 구절 – 에베소서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6. 자녀와의 나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하는 즐거움이란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아, 믿음의 소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함께 거니는 그런 사귀기가 있기를 축복한다.

5 주 내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붙들어주세요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 141 편

찬송 433 장 (통 490)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283 (통 183)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복음성가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에 묵상이

1. 여는 질문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을 당했지만 입술과 마음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한 적이 있나요?

2. 본문 이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담가운데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은 그 만큼 우리의 삶에 입, 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참여한 한글날특집 "말의 힘"이라는 실험다큐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두 병에 밥을 똑같이 담아놓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스티커,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양쪽에 각각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4 주동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긍정의 말만 들었던 병에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피고 구수한 누룩향이 난 반면, 부정의 말만 들었던 병에는 말그대로 까맣게 썩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 그 말에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교육사역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대일양육을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너무 귀해 함께 나눕니다. 선교사님이 그날도 고난과 문제 앞에 어찌할줄 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어려움과 난관은 문제지란다. 그런데 나는 네가 어떤 답을 쓰는지 궁금할 뿐이란다. 난 네가 쓴 답안대로 일할 거야! 난 네 입술이 고백한대로 일할 거야!" 그 후로 선교사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의지적이 로라도 선포한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문제지에 정말 멋지게 답을 달거야!"라고요. 하나님은 막혀 있는 상황을 아예 없이하실 수도 있고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민수기 14 장 28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오늘 당면한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꾸밈이나 신세타령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문제지 위에 좋은 답안을 써내려 가야하겠기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고, 결단을 통해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 말씀 속으로

- 1)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4 절)
- 2)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와, 악한 일을 피하는 악인들은 각각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10 절)

4. 삶 속으로

- 1)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2)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가치기준을 금하고 각자가 가지는 가치관과 수많은 기준제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신앙이 때로는 터부시되기도 하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용기 있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5. 암송 구절 – 시편 141: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6. 자녀와의 나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 누구나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 뱉는 말들이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의지적으로라도 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한다.